

제1절 개관

현실적으로 금융·신용은 자금위양의 형태를 취하기도 하고, 상품대금 지급연기의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좁은 의미에서 금융이라 하면 화폐액의 대차만을 가리키는 대차신용을 의미하나 넓은 의미에서는 대차신용과 연기신용을 총괄하여 자금 처분권의 양수·양도를 의미한다. 자금에 대한 대차의 수급이 경합하여 대차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금융시장이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시장이라는 것은 특정한 장소나 건물 등의 시설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금융기관과 일반대중, 기업, 여러 공사단체 간의 자금거래의 총계를 말하는 것 이므로 관념적인 시장을 의미한다.

이러한 금융·신용은 자원이용의 효율개선, 생산활동의 조장, 자본형성의 촉진, 교환활동의 조장, 화폐사용의 절약 등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해방이 되면서 금융체계가 해이해지고 인플레이션의 누증으로 인한 저축성향 하락으로 자금조달원이 상실되어 금융기관의 금융활동은 거의 정체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1945년 8월 15일 이후 무절제한 화폐증발로 악성인플레이션을 초래하여 각 금융기관은 단기 상업금융기관으로 동질화되었으며, 화폐·신용의 총 본산인 조선은행은 신용통제능력을 상실하고 있었다.

1950년 3월에 공포된 '경제안정 15원칙'을 중심으로 한 경제안정책이 강력히 실시되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설립되면서 안정화의 기틀이 마련되었는데, 6·25전쟁으로 다시 혼란 속에 빠지게 되었다. 특히 막대한 군사비 지출, UN군에 대한 원화 대여, 민심혼란에 따른 유동성 선호의 증대 때문에 통화증발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격심하였다. 6·25전쟁이 휴전협정으로 마무리된 후, 경제정책의 초점이 된 경제재건과 물가안정을 통한 악성인플레이션 수습을 위해 정부는 응자순위제와 응자한도제의 실시, 응자 사전승인제의 강화, 금리인하, 한국 산업은행의 발족, 은행점포의 정비작업 등 통제경제의 색채를 띤 일련의 금융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으로 1957년을 분기점으로 하여 경제는 점차 안정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에는 4·19와 5·16 등 일련의 대변혁과 대외적으로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의 전환 등을 겪으면서 다시 어려움에 빠졌다. 1960년대 초 경제시책의 중점은 종래의 안정우선정책에서 탈피하여 성장우선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제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1961년 8월에는 농업은행의 도시점포를 이어받은 중소기업은행이 창립되고, 같은 해 8월 15일에는 농업협동조합이 창립되었다.

경제개발계획 추진에 따른 재정투융자와 외환사정의 악화 등으로 격심한 물가등귀가 발생함에 따라, 1962년 6월 긴급통화조치에 따른 통화개혁이 단행되었고, 제2차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1967년 이후에는 외자도입의 증대, 내자동원의 확대를 통한 개발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별금융이 강화되고 개발금융이 확충되었다. 특히 정부는 경제개발계획 추진에 필수

적인 내자동원의 극대화와 그 저변확대를 위해 금융구조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 직접 금융시장의 육성, 지방은행 설립과 같은 민간금융기관의 확충 등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경제는 고도성장과정에서 누적된 인플레이션 압박과 기업의 재무구조 부실, 간접금융의존의 심화 등이 두드러진데다 국제수지상의 애로도 심각해져 1972년 '8·3 긴급경제조치'가 단행되었다.

이는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고 안정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정리, 금리인하, 은행차입금의 일부 대환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같은 해 8월 2일에는 사채시장을 대신할 상호신용금고법이 공포되었다. 이 외에도 1972년 12월에는 자본시장육성책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지원을 받는 기업들의 공개를 권고하고, 이에 불응할 때는 세제상의 불이익을 부과함과 아울러 금융지원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공개촉진법을 계기로 투자신탁회사가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동안의 강력한 금융통제정책이 금융자율화 및 금리자율화 정책으로 실질적인 전환을 하기 시작했다. 특히 1980년대에는 1980년 9월 현금카드가 은행에 도입된 이래 양도성 예금증서(CD)와 현금관리구좌(CMA) 등 수익성·편리성·유동성이 높은 새로운 금융상품들이 등장하였다. 또한 경업주의의 채택으로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간 차이가 대폭 축소되었음은 물론, 비통화금융기관 사이에도 상호 유사한 업무가 인가되어 비통화금융기관 사이의 차이도 많이 퇴색하였다.

1970년대부터 전세계적으로 금융규제 철폐와 금융시장의 국제화 추세가 진행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자본시장, 금융시장, 보험시장은 1997년 11월 IMF 구제금융을 받게되면서 1998년도엔 완전개방에 이르게 됨으로써, 향후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제고는 최대 당면과제가 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금융시장은 급격한 변동을 겪게 된다. 기존의 현금중심 거래에서 신용카드 중심의 거래, 사이버 머니의 등장 등 결제수단의 다양화와 사이버 은행의 등장 등으로 금융시장의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다. 즉 금융거래에서 비대면 채널의 발전과 모바일, 스마트폰 기반의 디지털 금융서비스가 일반화 되면서 금융시장은 예전과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한 서비스인 핀테크(fintech)의 발달로 금융시장은 또 다른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